



| 착한 사마리아 사람 <페르디난트 호들러, 캔버스에 유채, 1885년, 스위스 취리히 미술관 소장>

금주의 성화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을 가르쳐주신다. 페르디난트 호들러의 이 작품은 알몸으로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과 그를 안아 일으켜 물을 마시우는 사마리아 사람, 양쪽에서 모두 예수님의 모습을 느끼게 해 준다. 사마리아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여기신 예수님의 상징이다.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 또한, “내가 굶주렸을 때 … 내가 목말랐을 때 …”(마태 25,25 참조)하신 예수님을 상기시킨다.

† 오늘의 전례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마르 12,28ㄱ-34 참조)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사랑의 이중 계명은 두 개의 계명이 아니라 사실 하나의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과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과 사람 중 어느 쪽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제1독서 신명 6,2-6 제2독서 히브 7,23-28 복음 마르 12,28ㄱ-34

화답송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서동완 비오 신부 | 병원사목부

† 찬미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율법 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묻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 학자는 ‘사랑의 이중 계명’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웃 안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이중 계명’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은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용서, 배려, 친절, 관용, 자비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에 속하는 자기 사랑은 단순히 이기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자기 사랑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입

니다. 또 하느님께서 자기 자신의 현재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참으로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느님과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됩니다. 이는 바로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며 닮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이로써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됩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범이신 주 예수님 사랑의 절정은 성체성사에서 잘 드러납니다. 주님께서서는 스스로 수난을 원하시어 당신의 몸과 피를 모든 이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누가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죄인들을 친구로 삼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요한 15,12-13)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신앙의 해 특집 -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 ②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소집과 교황 요한 23세

최석환 요셉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제 262대 요한 23세 교황님께서 선출되신 다음 처음으로 군중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어느 귀부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뚱뚱할 수가!” 이전 교황님들이 귀족 티가 나고 날씬한 미남들이셨는데, 푸짐하고 짜리뭉뚱한 시골 할아버지 같은 분이 교황님이 되셨으니 놀랐던 것입니다.

1958년, 77세의 고령에 교황이 되셔서 1963년에 돌아가셨으니 고작 5년 도 못 되는 짧은 기간 교황직에 계셨던 셈입니다. 교황선거 직후에는 유력한 후보들의 경합이 하도 팽팽해서 일단 임기를 짧게 할 수 있는 나이 든 사람으로 뽑았다는 말이 나돌았고, 일부 신문에서는 “과도기 교황”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재임 기간 동안 요한 23세 교황님은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소집하셨던 것입니다.

교황님께서선 선출된 지 삼 개월 만에 공의회를 소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교황님이 왜 공의회를 소집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두들 시큰둥하거나 비웃었지만 교황님은 끈기 있게 공의회를 추진하셨습니다. 교황님은 공의회가 끝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선종하셨지만, 공의회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가톨릭교회에 엄청난 개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차츰 느끼게 되었습니다.



복자 요한 23세 교황님. 축일은 10월 11일이다.

교황님은 서민적이고 소탈한 분이셨습니다. 교황청에서 일하는 정원사나 청소부들과 가까이 사귀시고 인근의 병원과 감옥을 직접 찾아가시는 등,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하셨습니다. 교황님이 거동하실 때 타는 황금 가마를 거절하고 군중과 함께 걸으신다고 해서 ‘조니 워커’라는 별명도 생겼습니다. 전에는 교황님을 뵈실 때 세 번 무릎을 굽혀 절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그것도 없애시고, 보석으로 장식된 삼층관은 팔아서 사회복지사업에 기부하셨습니다. 근대 교황님들 중에 요한 23세 교황님만큼 온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신 분이 없었습니다. 교황님께서선 2000년 대혁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의해 복자품에 오르셨습니다. 주보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 서준홍 신부의 성모님 이야기

대구시 유형문화재 29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화재는 조상들이 살아오면서 남긴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 역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입니다. 문화재 보호법은 1962년 제정되었습니다. 문화재에는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건물, 그림, 서적, 공예품 등 형체가 있는 것을 유형문화재라 합니다. 반면에 종묘 제례, 판소리, 탈춤, 공예기술 등과 같이 형체는 없지만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무형문화재라고 합니다. 문화재 외에도 귀중하기 때문에 법으로 보존하도록 정해진 것에는 '기념물'과 '민속자료'가 있습니다.

문화재들은 중요도에 따라 세계유산, 국가지정 문화재, 시도지정 문화재, 문화재자료 등의 순서로 분류됩니다. 세계유산은 유엔 협약인 유네스코(UNESCO)에 의거하여 등재된 문화 유산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석굴암과 불국사(1995년), 해인사 장경판전(1995년), 종묘(1995년), 창덕궁(1997년), 화성(1997년), 경주 역사유적지구(2000년), 고창과 화순과 강화의 고인돌 유적(2000년),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2007년), 조선왕릉(2009년), 한국의 역사마을인 하회와 양동(2010년)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한 문화재이고, 시도지정 문화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



성모당 동굴 안에서 밖을 바라본 풍경

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지정한 문화재입니다.

100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 교구에 시도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계산주교좌성당은 1981년 9월 25일에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29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모당은 1990년 12월 15일 대구시 유형문화재 29호로**, 샬트르 성 바로 수녀원 성당이 2003년 4월 30일 대구시 유형문화재 43호로 등록되었습니다. 성 유스티노신학교와 샬트르 성바로 수녀회 코미넛관은 성모당이 등록될 때 함께 대구시 문화재자료 23호와 24호로 등록했습니다. 이 외에도 2003년에는 가실성당이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4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우리 교구가 간직한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햇살 담은 이야기 - 마음으로 읽는 삶의 단상

마음의 빛

한 보호소에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어머니는 죽었고 아버지는 알콜 중독자였습니다. 보호소에 같이 왔던 동생까지 죽자 소녀는 충격으로 매일같이 자살을 시도하며 소리쳤습니다. 결국 소녀는 정신병동의 지하 독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소녀를 포기했을 때, 한 노(老) 간호사가 그 소녀를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소녀에게 매일같이 과자를 들고 가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과자에 입도 대지 않았고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같이 소녀에게 찾아갔고, 조금씩 말문을 열기 시작한 소녀는 2년 만에 정상 판정을 받고 학교에도 입학하였으며 최우등생으로 졸업합니다.

어느새 숙녀가 된 그 소녀는 언젠가 신문 기사를 읽게 됩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 구함!”
자신에게 받은 무한한 사랑을 돌려주기로 결심한 그녀는 그 아이를 돌보기로 합니다. 결국 그녀는, 그 아이는 20세기 최대 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냅니다.

그 아이가 바로 ‘헬렌켈러’입니다. 그녀를 사랑으로 길러낸 사람이자 선생님이 바로 ‘앤 설리번’입니다. 그리고 앤과 함께 공감하고 감싸주면서 정상인으로 변화시킨 사람이 ‘로라’라는 간호사입니다.

누군가와 공감하고 이해하며 상처 난 마음을 치료하고자 한다면, 분석과 충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이 있어 주는 것 아닐까요?

헬렌켈러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태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볼 수 없는 사람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속에 빛을 갖는 일입니다. 힘과 용기를 가지세요.” 

■ 금주의 성인 **성 가롤로 보로메오**

성 가롤로 보로메오(11월 4일)

가롤로 보로메오 성인께서는 1538년 이탈리아 아로나(Arona)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심이 깊고 머리가 뛰어나 스물한 살에 교회법과 시민법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스물네 살에 사제품을 받으시고, 훗날 밀라노 대주교로 임명되어 교구 시노드와 여섯 번의 관구 공의회를 열고 진행하는 등 사목자로서 교회의 쇠신을 위해 일생을 헌신 하셨으며 모든 직위와 재능을 복음적인 교회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가난한 이들과 고통 받는 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셨던 성인께서는 페스트가 창궐하자 병원을 세워 환자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신학생과 교리교사의 주보이시고 예술과 학문의 수호자이신 성인께서는 1610년 바오로 5세 교황님에 의해 시성되었습니다.



■ 제2차 교구 시노드 폐막



제2차 교구 시노드가 10월 28일(일) 오후 2시 성김대건기념관에서 봉헌된 미사를 끝으로 폐막하였다. 이날 미사 중 교구장 대주교님께서는 시노드 사목교서를 제정하시고 반포하셨으며 교서의 내용을 실천하라는 의미로 성직자 대표, 수도자 대표, 평신도 대표에게 교서를 전달하셨다. 영성체 후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라 대주교님과 안동교구장 권혁주 요한크리스토포도 주교님의 축사가 이어졌고, 이날 영명을 맞으신 교구장 대주교님의 축하식이 진행되었다.

■ 대구 ME회관 축복식 및 대구 ME 33주년 기념행사



대구 ME회관 축복식 및 대구 ME 33주년 기념행사가 10월 27일(토) 백안동에 위치한 ME 만남의 집에서 있었다. 이날 행사는 ME 회관 돌레길을 함께 걷는 '다짐걷기'와 교구장 대주교님의 주례로 봉헌된 축복미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미사 후 교구장 대주교님의 영명축일 축하식과 ME 부부 음악제가 이어졌다.

■ 교구 일정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11월 10일 토요일은
(故)박춘택 베드로 신부님 7주기입니다.

- ▶ 상모성당 10주년 및 견진
_ 일시: 11.4.(일) 10:00
- ▶ 종교인평화회의 20주년 행사
_ 일시: 11.6.(화) 16:00, 동구문화체육회관
- ▶ 성요셉성당 20주년 및 견진
_ 일시: 11.11.(일) 10:30

이왕이면 ...

박성규 엘리지오



성소 | 피정

한티순교성지 예수마음기도 1일 피정

일시: 11.5(월) 10:30~16:30
 강의: 권민자 수녀 (성심수녀회)
 참가비: 회원 무료, 비회원 5천원 (중식대)
 신청: 11.4(일)까지, 출발: 5일 성모당
 문의: (054)975-5151

마음을 더 가볍게 하는 피정

138차: 11.19(월)~21(수)
 139차: 12.14(금)~16(일)
 장소: 성 베네딕도 왜관 피정의 집
 지도: 최봉도 신부
 대상: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문의: (010)5613-1762 / (054)971-0722

아프리카 들꽃마을 후원회

아가페 월피정

일시: 11.7(첫 수요일) 13:30
 장소: 꾸르실로 교육관
 지도: 최영배(비오) 신부
 문의: (010)4804-7574

스승예수제자수녀회 젊은이 피정

기간: 11.10(토) 15:00~11(일) 14:00
 장소: 가톨릭교육원 (화원명곡리)
 대상: 20~35세 이하 미혼여성

수시 성소상담 가능
 문의: 나탈리아수녀, (010)2717-0363
고린토 2서 성경연수
 기간: 11.10(토)~11(일)
 장소: 까리따스 젊음의 집
 대상: 35세 미만 미혼 여성
 문의: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
 (010)2568-5231

교육 | 모집

2013 자율형 사립고 대건고 신입생 모집

접수: 11.19(월) 9:00~21(수) 17:00
 제출: 11.19(월)~22(목), 대건고 안드레아관
 입학안내: 대건고 홈페이지 참고
 입학문의: 638-9332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일반특수대학원(경영, 디자인, 신학, 보건의료, 사회복지, 국제·다문화, 음악)
 접수기간: 10.29(월)~11.9(금)
 문의: 850-3637 / 660-5512(특수)

<http://www.cu.ac.kr>

성 음악교실 1기 학생 모집

첫모임: 11.11(일) 14:00
 과목: 그레고리안 성가

강사: 박대중 신부
 문의: 프란치스카눔, (070)4266-0045

2013 전기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계절제) 신입생모집

접수기간: 10.29(월)~11.9(금)
 분야: 22개 전공, 교원자격증 발급
<http://edu.cu.ac.kr> 모집요강 참조

예수성심 조이플스테이

기간: 11.17(토)~18(일)
 12.24(월)~25(화)

대상: 만18세~미혼여성
 주최: 예수성심수녀회 수녀원
 신청: (010)9056-9005

2013 가톨릭상지대학교 신입생모집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수시2차 모집: 10.25(목)~11.22(목)
 문의: 입시홍보처, (054)851-3021~2

자세한 내용은 대학 홈페이지 참조

경주영어마을 영어캠프 수강생 모집

기간: 1.7(월)~26(토) 3주간
 대상: 초3~중2, 주관: 대구가톨릭대
 접수: 11.19(월)~26(월)
 인터넷접수: www.gev.ac.kr (선착순)
 문의: (054)777-8000~5

미사안내

군중후원회 경주지역 월레미사	11월 5일(월) 11:00	성동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레미사	11월 5일(월) 19:30	꾸르실로 교육관 대성당
밀알회 ·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레미사	11월 5일(월) 11:00	계산 주교좌성당	지속적인성체 조배회 월레미사	11월 5일(월) 22:00	한티순례자의집
성지후원회 월레미사	11월 5일(월) 11:00	순례자성당	성요셉 아버지학교 수료자 월레미사	11월 6일(화) 19:30	꾸르실로 교육관
포항지역 교정사목 후원회 월레미사	11월 5일(월) 11:00	죽도성당	해외선교후원회 월레미사	11월 10일(토) 11:00	성모당
11월 후원자 가정을 위한 월레미사	11월 5일(월) 11:30	한국SOS 어린이마을	떼제미사	11월 10일(토) 18:00	삼덕성당

15년 경력
"이현숙의 결혼이야기"
 국내 2006.04 매일신문 인터뷰 (피플 "세상속으로")
 국제 2009-2010 경북 공무원 교육원 다문화강사
<http://www.leestory.kr>
 (054)458-3223 수선나 010-6571-3385
리스토리결혼정보
 구미시외버스터미널 본관2층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장주희(엘레나)
초음파백내장/라섹수술
수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수능 집중력을 높여
성적을 올려라!**
원방한의원 총명공진단
 의학박사(전문의) · 한의사 이 정 현(요셉)
 ☎431-7100 달서구 월성푸르지오 옆
 원더플스파랜드 3층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센터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혼수품 우대 · 이불 개조 · 기속사 이불
 손수비전문 Angela **안젤라 침장**
 The bedding Gallery
 월배 친견의 사거리 신한은행 맞은 편
T. (053)642-5191
 김성길(요셉) 017-531-5191
 박광희(테레사) 017-532-5191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전문
 경대병원 응급실건너편
T.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한결같은의원
 가정의학과 / 소아과 / 피부과 / 내과
 레이저클리닉 / 보톡스 / 필러
053)965-1441
 반야월 이마트내 2층 · 원장 문세민 스테파노

강남피아노사
 중고피아노 고가 매입
 조율, 운반, 수리, 매매
 각종 악기 영가 판매
 ☎ 010-3541-8194
053)423-7009
 김 스테파노 (교우님 우대)

행사 | 모임

이문희 대구교님과 함께하는

페이아르 샤프링 연구회 공개강좌

6회 강좌: 11.6(화) 16:00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성심교육관 (대명동)

주제: 마니교와 펠라지우스 이론

강사: 정래곤 신부

(대구가톨릭대학교 외래교수)

제12회 가톨릭사진가회 가을사진 전시회

기간: 11.1(목)~5(월), 교구청 잔디광장

제38회 대구가톨릭미술가회 정기 전시회

기간: 11.13(화)~18(일)

장소: 봉산문화회관 전시실

주제: 기도, 감사, 평화

오프닝: 11.13(화) 18:00

대구대교구 생활성가 축제

1부: 고리콘서트 11.17(토) 19:30

2부: JAM페스티벌 11.18(일) 14:00

장소: 교구청 교육원 다동 강당

교육 | 모집

지성인을 위한 신앙특강

일시: 11.17(토) 10:00, 남산동대신학원

주제: 가장 멋진 삶, 참가비: 5천 원

강사: 두봉(레나도) 주교

문의: 신학교육원, 660-5105~6

시편성가연수(김정선수녀)

발성법(박재연)

일시: 11.4(일) 15:00, 회비: 1만 원

문의: 가톨릭음악원, 255-4847

전례꽃꽂이 강좌반 3기 수료전

기간: 11.7(수)~9(금)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의실

모집: 초, 중, 고급, 전문가반 모집

기간: 10.15(월)~11.20(화)

문의: (010)2506-6259

2013 효성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 11.19(월)~23(금) 9:00~16:30

자격: 2006.1.1~12.31 사이에

출생한 대구광역시 거주 아동

방법: 컴퓨터추첨, 문의: 720-5500

<http://www.dg-hyoseong.es.kr>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2년 대상자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조기발견에 좋습니다.

문의: 650-4591

채용

교구청 회계과 직원 채용

자격: 상경계 대졸자로 한글, 엑셀,

더존 전산회계 가능한 군필 남자임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필),

교적사본

마감: 11.8(목) 17:00까지

제출처: 교구청 회계과, 250-3007

상지유치원 버스기사 채용

서류: 교적 사본, 자기소개서(자필),

이력서, 관련서류 등

마감: 11.16(금) 까지

문의: 558-4422

계산서원 여직원 채용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신부님추천서

문의: 257-8962

2013년 대구주보 광고 신청 안내

순번추첨방식을 통해 접수합니다. (대기 번호표는 없음)

순번추첨은 1·2차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 **1차 추첨**은 사전신청기간 내에 서류를 모두 제출하신 업체에 한해 진행합니다.

1차 순번추첨 일시: 11.26(월) 09:00, 장소: 교구청 별관 1층 대회의실

사전신청 기간: 10.29(월)~11.9(금),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

- **2차 추첨**은 추첨 당일에 서류를 제출하신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2차 순번추첨 일시: 11.26(월) 13:00

제출서류: 1. 교적 사본 2. 본당신부님 추천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사회복지 관련 사업체인 경우 추가로

교구 사회복지국장 신부님 추천서

광고비는 전액 계좌이체로만 받습니다. (접수일부터 익일까지)

업주가 냉담자이거나 신자들의 유익을 해치는 업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결혼정보회사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초혼/재혼

전국대표전화 1566-6205

대구 070-8827-6207 부산 051)817-3885~8
서울 02)579-3889 02)3141-3888
<http://www.mjms.co.kr> / 대표 김순자 (마리아)

최고의 원조만을 고집하는 김의 명품

사해인 청정해역 명품 김

광천 이조맛김

성전김(가래미) 및 바지해, 성모해·자모해 등 직통단체 기증모음

이정숙(모니카) 010-4123-5353

광천본사: (041)641-3838 대구지사: (053)255-3836
한개리도 배송해드립니다. 5만원 이상 배송비 무료

백두정형외과
어깨 관절경 수술전문

정형외과전문의/의학박사/원장
배연두(아오스당) 배상근(베드로)
소아청소년과/신장아세포전문의/의학박사/원장
배상영(마카라) www.baekduos.com

425-5919 평일 09:00~19:00
동인치안센터 건너편

국내최초 소아난치병 근본치료 한의원

성모아이한의원

• 잦은 열감기/기침 • 비염/중이염
• 간질/틱/ADHD/자폐 • 언어장애/보행장애
• 야뇨증/성장장애 • 감각통합

"머기 좋은 딸기만 증류한약"

한 의 학 박사
현 동국대 한의학과 교수 **김성철(비오)**
☎ (053)592-1275

DACO 대구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안데스 호수소금

동성약국 현영희(아네스)
박준구(베드로)

T.053-766-3815
010-3295-4476

분도는 한 방울의 기름도 속이지 않습니다!

(주)분도 축복을 전하는 사람들
분도석유 / 주유소

난방유 대구전지역 배달
080-003-5189 (무료전화)
T. 656-2500, 425-7835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김 현 철(베네딕도)

"2대째 30년 전통"

성심결혼

국가등록업체 · 보증보험가입업체

* 전문직종 및 초혼 재혼 다량 확보 *

☎ 644-4007, 558-8003

비산대거리 서부초 옆 류성실(마리아)

와우이비인후과

수술 | 중이염, 비염, 축농증
전문 | 코골이, 편도선 수술

귀 전문클리닉, 보청기 상담, 장애잔단
원장/전문의 **이영호(바오로)**
(전, 가톨릭명원 이비인후과 교수)

지하철 1호선 성당역 1번 출구
☎ 654-2052 (서부정류장 내거리 LG전자 옆)